2026.03.16.

SK그룹 리밸런싱 효과 점검

- 그룹 신용위험 완화에 긍정적
- SK, SK이노베이션, SK온 등급유지여력 개선

유준위 기업1실 수석연구원
02.368.5403
jwyoo@korearatings.com

이순주 기업1실 선임연구원
02.368.5565
sjlee@korearatings.com

최주욱 기업1실 실장
02.368.5303
jwchoi@korearatings.com

SK그룹의 사업재편이 마무리되고 있다. 계열사 합병을 통하여 SK이노베이션, SK온의 사업 및 재무역량이 강화되었고, 적극적인 재무안정화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면서 그룹 전반의 재무위험 역시 일정 수준 경감되었다. SK㈜는 조단위의 메가 딜을 완료하여 자금을 확보하였고, SK바이오팜, SK실트론 등의 지분 추가 매각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자산 매각을 통해 유입된 자금은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자회사 재무지원, 자체 차입부담 완화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SK㈜ 산하의 주요 계열사들도 유상증자를 통한 모회사 지원 외에 투자자금 마련 및 채무상환을 위해 자체적인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그룹 리밸런싱이 순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그룹 전반의 신용위험이 일정 수준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PRS 등 잠재채무와 관련하여 투자성과 가시화 여부, 차환가능성, 비차입조달규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반도체부문에 의존적인 현금창출구조, 상법개정에 따른 계열사간 유기성 약화 등이 그룹 신용도 관리를 제약할 수 있어 사업포트폴리오별 재무부담 제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온이 합병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으로 사업위험이 경감되고, 그룹 차원의 비핵심사업 매각, 자산 매각이 당초 예상대로 진행되면서 그룹 재무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신용위험이 경감되었다. 지분율 상의 제약과 상법개정에 따른 계열사간 재무 지원 한계를 감안할 때 그룹 영업현금창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의존적인 수익기반은 그룹 신용도 관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엔 제약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소그룹 등 반도체부문 외 사업포트폴리오의 경우, 영업현금창출력 제고를 통한 재무안정성 통제 여부를 중점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SK㈜가 안정적인 영업수익과 보유 지분 매각 등으로 그룹 리밸런싱 과정에서의 자회사 지원, 지분 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응하며 자체 재무부담을 완화하였다. SK㈜의 자체 재무안정성 개선, SK이노베이션 등급유지여력 개선 등을 감안할 때, SK㈜의 신용도 안정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한다. SK㈜ 신용도와 관련하여 중단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 신용도 방어 여부, 자체 재무부담 및 그룹 잠재채무 부담 수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 SK그룹 리밸런싱 요약

SK 그룹이 사업재편을 통해 SK 이노베이션, SK 온의 사업 및 재무역량을 강화하였고, 그룹 전반의 재무위험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재무안정화 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2024년 11월 주요 계열사인 SK 이노베이션은 舊 SK E&S 를 흡수합병하였고, SK 온은 SK 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 엔텀을 각각 2024년 11월, 2025년 2월에 흡수합병하였다. 2025년 11월엔 SK 온이 SK 엔무브까지 합병하였다.

SK㈜는 2025년 1분기와 3분기에 SK 스페셜티, 베트남 Vingroup 지분 매각 등 조단위의 메가 딜을 완료하여 약 3.7조원의 자금을 확보하였고, SK 바이오팜 지분 일부 매각(PRS, 1.25조원), SK 실트론 매각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산 매각을 통해 유입된 자금은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자회사 재무지원, 자체 차입부담 완화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SK㈜는 2025년 1분기 SK 시그넷에 1,150억원 출자하였고, 3분기엔 SK 이노베이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00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올해 2월엔 SKC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여 5,397억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자회사의 운영, 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자산 매각 등을 토대로 마련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결과, 2025년 9월말 별도기준 SK㈜ 순차입금이 전년 말 대비 2.1조원 감소하며 재무부담이 완화되었다.

SK㈜ 산하의 주요 계열사들이 유상증자를 통한 모회사 지원 외에 투자자금 마련 및 채무상환을 위해 자체적인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SK 이노베이션이 신종자본증권 발행, 보령 LNG 터미널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자금조달로 자본을 확충하였고, SK 온은 Ford 와의 북미합작법인인 BlueOval SK 를 종결하고 켄터키 공장 관련 유형자산을 매각하여 연결기준 차입부담을 축소하였다. SK 에코플랜트는 리뉴어스, 리뉴원, 리뉴에너지충북 지분 100%를 약 1.73조원에 매각하였고, SK 오션플랜트를 매각을 추진 중이다. SK 이노베이션 자회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와 여주에너지서비스는 각각 1.65조원, 1.35조원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약 3조원의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채무상환 및 모회사 대여금 등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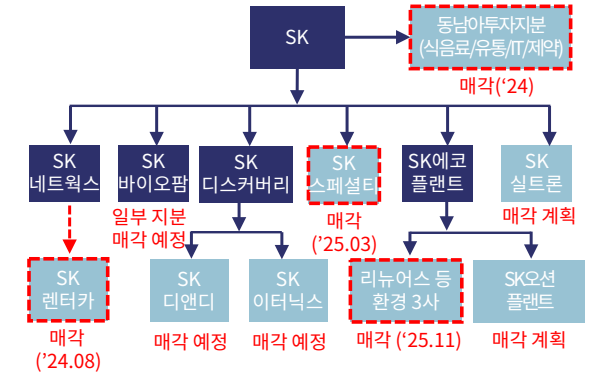
[표 1] SK 그룹 리밸런싱 요약

구분	계열사	내용	SK㈜	
			자금소요	자금조달
24.4Q	SK이노베이션	SK E&S 흡수합병(24.11)	-	-
	SK온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흡수합병(24.11)	-	-
25.1Q	SK㈜	SK스페셜티 지분 85.0%(2조 6,308억원) 매각 완료	-	2조 6,308억원
	SK시그넷	유상증자 1,500억원 실시(SK㈜ 1,150억원 출자)	1,150억원	
	SK㈜	SK브로드밴드에 판교 데이터센터 양도	-	5,068억원
	SK텔레콤	카카오 지분 2.44% (4,133억원) 매각 완료	-	-
	SK온	SK엔텀 흡수합병(25.02)	-	-
25.3Q	SK이노베이션	2조원 규모 유상증자 실시 (SK㈜ 4,000억원 출자, 1조 6,000억원 PRS로 조달)	4,000억원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채권형 신종자본증권) 7,000억원 발행	-	-
	SK IET	3,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실시(전액 PRS로 조달)	-	-
	SK온	2조원 규모 유상증자 실시(전액 PRS로 조달)	-	-
	SK㈜	베트남 통신·IT기업 Vingroup 지분 6.1% (약 1조 1,000억원) 매각	-	약 1조 1,000억원
	SK에코플랜트	SK㈜로부터 유상증자 및 주식교환 방식으로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를 자회사로 편입	-	-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 중	-	-
	SKC	영구교환사채 발행(25.06 2,600억원, 25.08 1,25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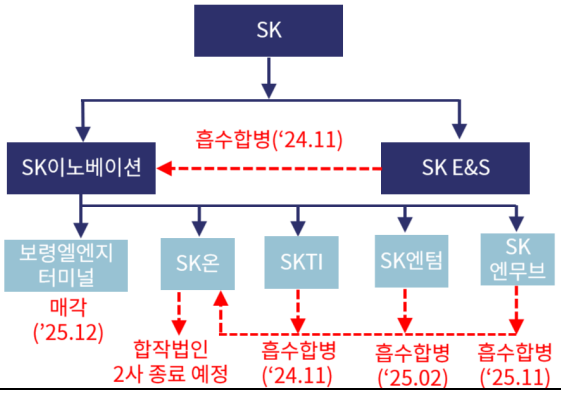
구분	계열사	내용	SK㈜	
			자금소요	자금조달
25.4Q	SK디스커버리	SK디앤디 지분 31.3%(742억원) 매각 예정(26.04)	-	-
	SK에코플랜트	리뉴어스, 리뉴원, 리뉴에너지충북 지분 100%(1조 7,300억원) 매각 완료	-	-
	SK온	중국 EVE에너지와의 합작공장 2곳 운영 종료	-	-
		Ford와의 북미합작법인 BlueOval SK 종결, 켄터키 공장 관련 유형자산 매각(그 대가로 Ford는 BlueOval SK에 대한 지분 50.0% 유상감자 실시)	-	-
		SK엔무브 흡수합병(25.11)	-	-
	SK㈜	SK실트론(지분 51.0%, TRS 계약 관련 19.6%) 매각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
	SK이노베이션	보령엘엔지터미널 지분 50.0%(5,600억원) 매각 완료	-	-
	SK시그넷	유상증자 300억원 실시(SK㈜ 전액 출자)	300억원	-
	나래에너지서비스 여주에너지서비스	CPS발행(나래에너지서비스 1.65조원, 여주에너지서비스 1.35조원)	-	-
26.1Q	SK㈜	SK바이오팜 일부 지분 13.9%(1조 2,500억원)를 PRS 계약으로 매각 예정(26.03)	-	1조 2,500억원 예정
	SK㈜	베트남 제약사 Imexpharm 지분 64.8%(약 3,000억원) 매각	-	약 3,000억원
	SKC	1조원 규모 유상증자 실시 예정(SK㈜ 5,397억원 출자 예정)	5,397억원	-
	SK디스커버리	SK이터닉스 지분 31.0%(2,478억원) 매각 예정		

주) 26.1Q 내용은 공시일 현재까지의 내용 반영
자료) 공시자료

[그림 1] 그룹 비핵심사업 매각



[그림 2] SK이노베이션 소그룹 포트폴리오 재편



자료) 각 사 공시자료

2. 그룹 리밸런싱 효과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및 재무구조 안정화 등의 그룹 리밸런싱이 일정 수준 완료됨에 따라 그룹 전반의 신용위험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반도체부문에 의존적인 현금창출구조, 상법개정에 따른 계열사간 유기성 약화 등이 그룹 신용도 관리를 제약할 수 있어 사업포트폴리오별 재무부담 제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4~25년 SK이노베이션-SK이엔에스, SK온-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온-SK엔텀, SK온-SK엔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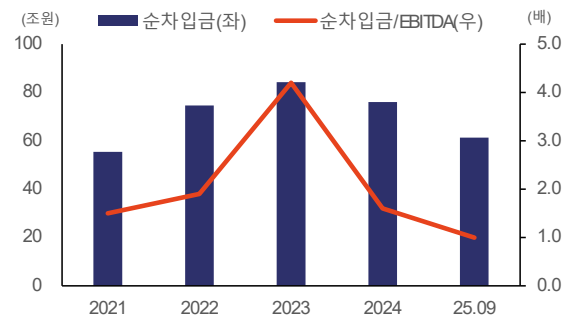
등 연이은 계열사간의 합병 등 그룹 차원의 핵심 사업구조 재편이 일단락되었고, 비주력 사업 정리, 보유자산 매각 등 차입금 상환재원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룹 차원의 비핵심사업 매각, 자산 매각이 당초 예상대로 진행되면서 그룹 재무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2025년 SK스페셜티(2.6조원), 보령LNG터미널(5,601억원) 등 계열사 지분 매각 등에 따른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차입금 상환 및 투자 재원이 확보되어 그룹 전반의 재무안정성이 통제된 것으로 본다. 향후 SK실트론 등 지분 매각 계획을 감안할 때, 중장기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응하며 그룹 재무위험이 제어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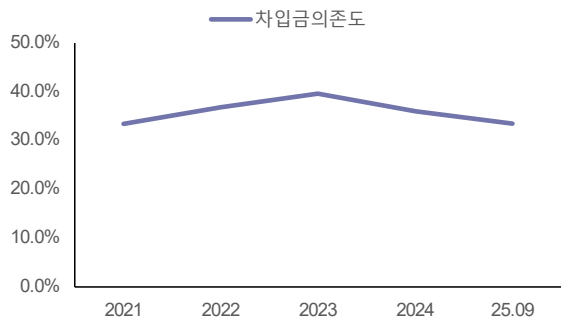
SK이노베이션은 2024년 11월 합병으로 발전 및 도시가스부문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기반이 더욱 다각화되며 사업안정성이 제고되었다. 2025년 AMPC를 반영한 연결기준으로 순차입금/EBITDA 6.7배, EBITDA/영업자산 5.6% 등을 기록하며 하향변동요인을 충족하였지만, 합병을 토대로 개선된 사업포트폴리오, 추가적인 재무 개선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재무안정성이 제어되며 신용도 하방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화학, 이차전지부문이 부정적인 사업환경, 저조한 가동률 등으로 부진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실적 회복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SK온**의 경우 세 개의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적자사업인 배터리부문을 보완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실적변동성이 완화되었고, 피합병회사의 우수한 재무구조가 재무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양사 모두 합병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으로 영업현금창출력이 제고되면서 사업위험이 경감된 것으로 본다.

그룹은 투자 재원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PRS를 비롯한 부채성 자본 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025년말 해당 조달 규모가 25년 6월말 대비 4조원 증가한 1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원활한 차환 이력, 만기 연장 조건, 그룹 영업현금창출력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상환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하이브리드증권 및 파생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은 구조적으로 금융부채 성격이 내포되어 있어 회계기준 변경, 금융시장 경색 시 차환 여력이 저하될 수 있고 투자성과가 부진할 경우 자금유출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성과 가시화 여부, 영업실적 추이, 차환 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그림 3] SK그룹 순차입금 및 순차입금/EBITDA



[그림 4] SK그룹 차입금의존도



자료) 공시자료

[표 2] SK 그룹 자본증권 및 차액정산계약 조달 현황

(단위: 조원)

2025.06월말 기준	SK㈜	SK 이노베이션	SK 에코플랜트	SKC	SK 텔레콤	SK 디스커버리	합계
TRS	1.2	-	-	-	0.4	-	1.6
PRS	-	1.5	0.1	-	-	0.2	1.8
신종자본증권	-	1.3	0.3	0.3	0.4	-	2.3
CPS	-	2.8	0.6	-	-	0.2	3.6
RCPS	-	3.1	0.4	0.7	-	-	4.2
합계	**1.2**	**8.7**	**1.4**	**1.0**	**0.8**	**0.4**	**13.5**

주) 1. SK㈜는 별도 기준, 여타 계열사는 각 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옵션계약가치를 차입금으로 인식하는 차액정산계약을 포함
2. SK이노베이션 기 발행 신종자본증권 중 1,450억원은 2025년 7월 상환됨
3. SK이노베이션 CPS(2.8조원)는 연결종속기업 SK온이 발행한 것으로 2025년 9~10월에 상환 예정

자료) 각 사 반기보고서, 한국기업평가

(단위: 조원)

2025.12월말 기준	SK㈜	SK 이노베이션	SK 에코플랜트	SKC	SK 텔레콤	SK 디스커버리	합계
TRS	1.2	-	-	-	0.4	-	1.6
PRS	1.6	3.8	0.1	-	-	0.2	5.7
신종자본증권	-	1.8	-	0.4	0.4	-	2.6
CPS	-	3.0	0.6	-	-	0.2	3.8
RCPS	-	3.1	0.4	0.7	-	-	4.2
합계	**2.8**	**11.7**	**1.1**	**1.1**	**0.8**	**0.4**	**17.9**

주) SK㈜는 별도 기준, 여타 계열사는 각 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옵션계약가치를 차입금으로 인식하는 차액정산계약을 포함
자료) 각 사 (연결)감사보고서, 회사 제시

그룹 리밸런싱으로 신용위험이 경감되긴 했지만, 그룹 영업현금창출의 70% 이상이 반도체부문에 집중된 상태로, 반도체 의존적인 수익기반은 그룹 신용도 관리 측면에서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의 상법개정으로 계열사간 유기적인 재무지원이 쉽지 않게 되어 특정 부문에 집중된 현금창출력 및 재무역량은 그룹 전반의 신용위험 제어에 유의미하게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관련 계열사 Value-up 및 지분 매각 등 그룹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반도체부문이 간접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룹 내 석유화학부문은 국내 산업구조개편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부진한 업황 속에 중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차전지부문의 경우,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 둔화 등 비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Ford와의 합작법인인 BlueOval SK 종결을 통한 생산Capa 축소 등으로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가동률 및 실적 회복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화학, 이차전지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소그룹 사업포트폴리오의 경우, 영업현금창출력 제고를 통한 재무안정성 통제 여부를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3. SK㈜ 재무안정성 및 신용도 점검

SK㈜가 안정적인 영업수익과 보유 지분 매각 등으로 그룹 리밸런싱 과정에서의 자회사 지원, 지분 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응하며 자체 재무부담을 완화하였다. 주력 자회사 중 SK이노베이션은 사업재편 및 자본조달 등으로 등급유지여력이 회복되었다. SK㈜의 자체 재무안정성 개선, SK이노베이션 등급유지여력 개선 등을 감안할 때, SK㈜의 신용도 안정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한다.

SK㈜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 및 상표권수익에 기초한 꾸준한 영업현금흐름을 유지하고, SK스페셜티 매각(2.6조원), 베트남 기업 지분 매각 등에 따른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결과,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참여(4,000억원) 등 자회사 지원과 지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 대응하며 차입부담을 완화하였다. 주요 커버리지 및 레버리지 지표가 개선되었고, 특히 이중레버리지가 2024년말 135.5%에서 2025년 말 125.8%로 하락하며 130%를 하회하였다.

SK㈜ 신용도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 주력 3개사의 자체신용도에 기초한 Building Block Approach를 적용 중이며,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의 결합가중치가 90%를 상회하여 양 사가 SK㈜ 신용도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舊SK이엔에스와의 합병으로 사업포트폴리오가 개선되고, 유상증자 등으로 재무안정성이 제어됨에 따라 등급유지여력이 제고된 것으로 본다. 이는 SK㈜의 신용도 방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SK㈜ 신용도와 관련한 중단기 핵심 모니터링 요인은 SK이노베이션 신용도 방어 여부, 자체 재무부담 및 그룹 잠재채무 부담 수준 등이다.

[표 3] SK㈜ 재무요약(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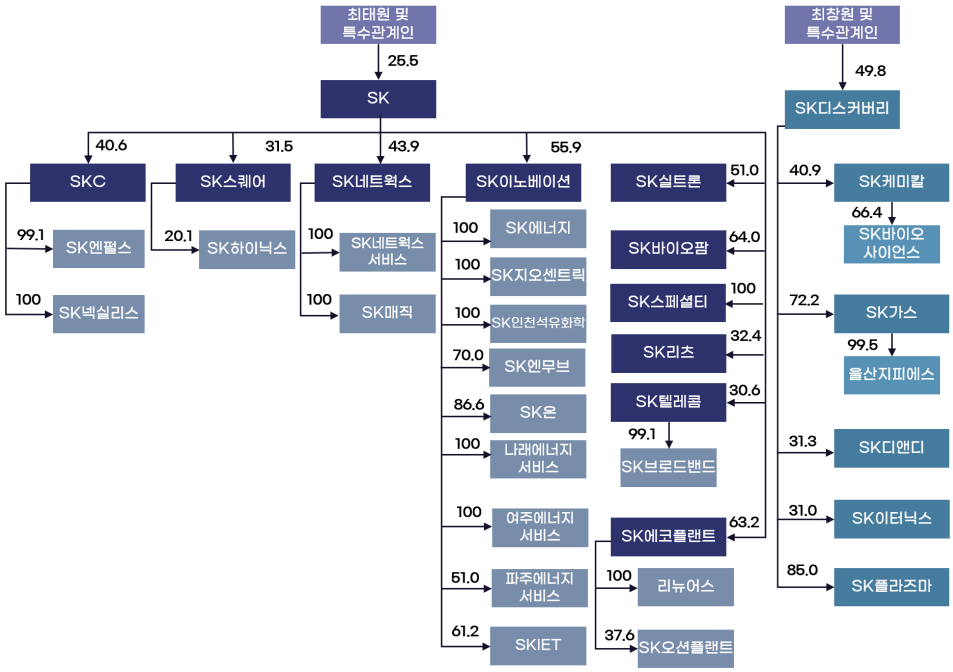
(단위: 억원, %, 배)

구분	2021	2022	2023	2024	25.12
매출액	27,495	33,698	41,370	37,068	36,123
EBIT	8,301	11,087	15,505	9,983	8,132
현금성자산	2,856	2,658	4,937	5,157	3,203
종속기업투자자산	205,234	213,965	218,307	198,087	195,894
총차입금	98,020	112,894	114,587	110,417	89,450
자본총계	157,901	158,878	159,180	146,199	155,709
순차입금	95,165	110,236	109,649	105,260	86,247
실질현금창출력	9,421	12,400	16,821	11,269	9,280
EBIT 마진	30.2	32.9	37.5	26.9	22.5
차입금의존도	36.0	39.7	40.0	40.6	33.9
이중레버리지	130.0	134.7	137.1	135.5	125.8
순차입금/실질현금창출력	10.1	8.9	6.5	9.3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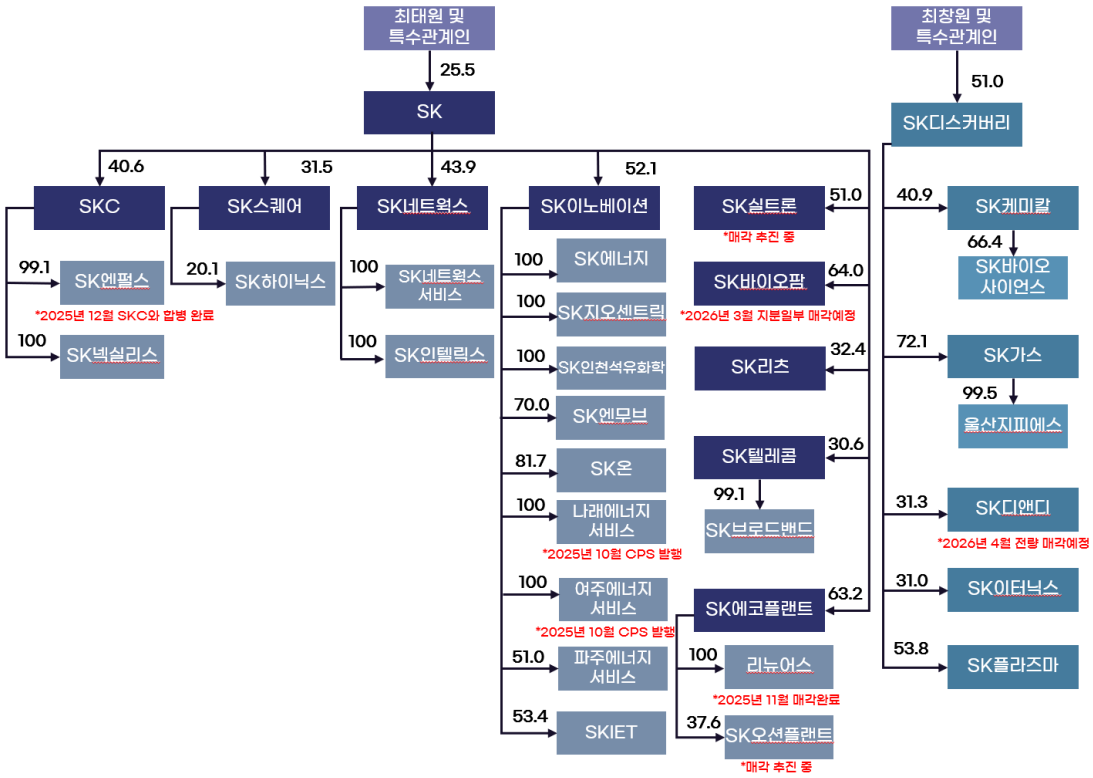
주) 실질현금창출력=EBITDA
자료) SK㈜ 감사보고서

[Appendix]

그룹 지배구조(2024년 12월말 기준)



그룹 지배구조(2025년 9월말 기준)



주) 1. SK매직은 2025년 7월 10일 사명을 SK인텔릭스로 변경
2. SK온 지분율 81.7%는 SK엔무브 합병신주 미반영 기준
자료) 공시자료

[유의사항]

(1)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